

# 三陰三陽의 時間配屬에 대한 연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李容範\*\*

## 關於三陰三陽時間配屬研究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李容範

『黃帝內經』內含韓醫學理論, 其中三陰三陽的內容非常難. 其原因是『黃帝內經』中三陰三陽的內容非常複雜, 特別是三陰三陽的 時間配屬每篇不一樣. 本論文通過關於『黃帝內經』中三陰三陽的 時間配屬進行研究, 得出如下結論.

運氣之主氣順序就是五行(木火土金水)順序, 這說明主氣變化主要根據形之變化. 運氣之客氣順序就是氣之大小(一陽→二陽→三陽→一陰→二陰→三陰), 這說明客氣變化主要根據氣之變化.

『素問脈解』的三陰三陽月別配屬是陰關(11月:太陰)→陽關(1月:太陽)→陰闔(3月:厥陰)→陽闔(5月:陽明)→陰樞(7月:少陰)→陽樞(9月:少陽). 太陽少陰是陰陽勢力的基礎, 所以相爲表裏. 少陽少陰是陰陽勢力的中間, 所以相爲表裏. 太陰厥陰是陰陽勢力的全盛期, 所以相爲表裏. 此表裏的意思反映經絡流注. 太陰陽明經流注身體前面, 太陽少陰經流注身體後面, 少陽厥陰經流注身體側面.

『靈樞經脈』的12經脈流注順序是太陰陽明經→少陰太陽經→厥陰少陽經的表裏經絡爲主. 首先脈氣流注太陰陽明經的理由, 就是後天水穀精微和呼吸大氣結合而形成經脈之氣. 之後脈氣流注少陰太陽經, 說明循行太陰陽明經的後天營養物質轉入寒熱經絡而爲薪. 其次脈氣循行厥陰少陽經的, 因爲寒熱經絡之火氣被厥陰少陽經之風氣調節而後調節燥濕經絡, 比如作飯時, 火氣就是少陰太陽經, 風氣就是厥陰少陽經, 鼎內之飯就是太陰陽明經.

『靈樞陰陽繫日月』的三陰三陽月別配屬主要是樞關闔關樞順序. 這樣排序的原因是開門和關門過程. 在春夏, 陽經絡之脈氣如開門關門過程, 隨着樞關闔關樞順序循行, 在秋冬, 陰經絡之脈氣如開門閉門過程, 隨着樞關闔關樞順序循行.

Key Words : 表裏, 關闔樞, 三陰三陽的 時間配屬, 寒熱, 燥濕, 風火.

## I. 서론

『黃帝內經』에는 三陰三陽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다. 그 중에서 三陰三陽을 시간적으로 배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素問

脈解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月別配屬, 그리고 運氣篇에 나오는 主氣와 客氣의 三陰三陽 순서, 『靈樞經脈篇』에 나오는 經脈流注 순서, 『靈樞陰陽繫日月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月別配屬 등의 내용은 각각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黃帝內經』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배속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三陰三陽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한 三陰三陽의 배속순서에 대

\* 이 논문은 2005년도 상지대학교 연구비지원(연구년제)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033-730-0668, ybl@mail.sangji.ac.kr

하여 연구하는 것은 三陰三陽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II. 본 론

三陰三陽은 六氣변화에 의하여 유발된 陰陽偏差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六氣는 本이 되고 三陰三陽은 標가 된다.<sup>1)</sup> 六氣는 3가지 관점에서 기후의 변화를 관찰할 것이다. 첫 번째 관점은 寒熱의 문제이고, 두 번째 관점은 燥濕의 문제이며, 세 번째 관점은 風火(疏通과 不通)의 문제이다. 이러한 六氣에 의하여 표현되는 三陰三陽은 寒(水)-太陽, 熱(君火)-少陰, 燥(燥金)-陽明, 濕(濕土)-太陰, 風(風木)-厥陰, 火(相火)-少陽이다.<sup>2)</sup>

『黃帝內經』중에서 三陰三陽을 시간적으로 배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運氣에 나오는 主氣와 客氣의 三陰三陽

運氣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時間配屬은 主氣와 客氣의 두 가지가 있다. 主氣는 일년의 기후변화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客氣는 일년의 기후변화에 차이가 생기게 한다. 가령 매년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은 主氣의 厥陰風木之氣가 用事하기 때문이며, 해마다 봄이 따뜻하면서도 매년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 해의 甲子에 따라 客氣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主氣의 순서를 보면 전해의 大寒日부터 厥陰風木 → 少陰君火 → 少陽相火 → 太陰濕土 → 陽明燥金 → 太陽寒水로 되어 있다. 大寒日부터 시작하는 것은 기후가 가장 추운 때가 大寒日이고, 그 大寒日부터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므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때부터 다음해의 主氣가 들어온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주로 地氣에 의존하기 때문에 主氣를 地

氣라고도 한다. 이러한 일정한 기후의 변화는 木火土金水의 오행순서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三陰三陽으로 설명되는 것은 氣이고, 五行으로 설명되는 것은 形이다. 가령 예를 들면 五臟은 五行으로 설명되며, 經絡은 三陰三陽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主氣를 五行의 순서로 설명하는 것은 主氣가 비록 氣는 氣이지만, 地 즉 形에 바로 밀착된 氣이기 때문에 形의 설명방법인 五行의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客氣의 순서는 그 해의 甲子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데, 그 해의 地支가 세 번째 氣인 司天之氣가 되며 이것을 중심으로 一陰(厥陰) → 二陰(少陰) → 三陰(太陰) → 一陽(少陽) → 二陽(陽明) → 三陽(太陽)의 순서로 用事한다. 그 해의 地支를 三之氣인 司天之氣로 보는 것은 일년 六氣의 운행에서 三之氣를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약 80을 평균수명으로 보았을 때 약 40대 전후의 氣가 전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司天之氣의 의미를 大運과 비교하여 보면 大運은 辰月 즉 용의 달인 3월의 천간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이는 사람의 일생을 12월로 보면 약 20세에 해당한다. 20세에는 대개 대학의 진로가 정해지므로 이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일생에서 보면 大運에 해당하는 20세 전후에는 주로 선천적인 자신의 학업능력에 의하여 일생의 중요한 시기를 대처해 나가야 하지만, 40대가 되면 직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대인관계에 의하여 중요한 일들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 즉 인생에 있어서 꼭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행복을 담보하지는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大運과 司天之氣는 사람의 일생에서 20세 전후와 40세 전후의 중요한 시기로 그 의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客氣는 三陰三陽의 힘의 크기 순서에 의하여 그 배속순서가 정해지는데, 이는 客氣가 天氣로서 순수한 氣이기 때문에 그 배속순서도 단순한 힘의 크기로 消長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客氣의 배속순서의 원칙은 司天之氣를 정할 때에도 이용된다. 예를 들면 子午년에 少陰君火가 司天之氣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 891-893.

2) 이용범. 관합추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 예.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4. 17(1). pp. 219-221.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12地支의 陰陽消長 관계를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生陰長, 陽殺陰藏’이라 한 것을<sup>3)</sup> 기준으로 살펴보면, 寅月이 一月이므로 寅月부터 12地支를 1/4로 나누어 寅卯辰은 陽生이 되고, 巳午未는 陰長이 되며, 申酉戌은 陽殺이 되며, 亥子丑은 陰藏이 된다. 이를 三陰三陽의 힘의 크기대로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여보면, 陽生에서는 寅은 一陽인 少陽, 卯는 二陽인 陽明, 辰은 三陽인 太陽이 되며, 陰長에서는 巳는 一陰인 厥陰, 午는 二陰인 少陰, 未는 三陰인 太陰이 되고, 陽殺에서는 申은 一陽인 少陽, 酉는 二陽인 陽明, 戌은 三陽인 太陽이 되며, 陰藏에서는 亥는 一陰인 厥陰, 子는 二陰인 少陰, 丑은 三陰인 太陰으로 배속된다.

그러므로 子午에는 少陰君火, 丑未에는 太陰濕土, 寅申에는 少陽相火, 卯酉에는 陽明燥金, 辰戌에는 太陽寒水, 巳亥에는 厥陰風木이 각각 배속된다.<sup>4)</sup>

이와 같이 客氣에서는 三陰三陽의 힘의 크기순서가 配屬순서가 됨을 알 수 있다.

## 2. 『素問·脈解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月別配屬

『素問·脈解篇』에서는 1월(寅)-太陽, 3월(辰)-厥陰, 5월(午)-陽明, 10월(申)-少陰, 9월(戌)-少陽, 11월(子)-太陰으로 三陰三陽이 배속되어 있다.<sup>5)</sup> 그런데 여기에서 『素問』 원문에는 少陰을 腎이라 10월에 배속시켰는데, 이 문단에서 太陽은 寅에, 厥陰은 辰에, 少陽은 戌에, 陽明은 午에, 太陰은 子에 각각 배속시켰으므로, 少陰을 腎이라 한 것은 申의 聲誤이고, 또한 10월도 다른 것의 配屬月이 1, 3, 5, 9, 11 등 홀수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의 形誤(七을 十으로 잘못 쓴 것)로 본다.<sup>6)</sup> 또한 『黃帝內經太素』에도 10월

이 7월로 되어 있다.<sup>7)</sup>

이러한 三陰三陽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의 순서를 本인 六氣로 다시 표현해보면 1월-寒, 3월-風, 5월-燥, 7월-熱(君火), 9월-火(相火), 11월-濕이다. 이러한 순서는 앞에서 말한 主氣 즉 地氣의 계절별 배속의 순서인 厥陰風木→少陰君火→少陽相火→太陰濕土→陽明燥金→太陽寒水와 다르다.

생각건대 『素問·脈解篇』은 주로 『靈樞經脈』에 나오는 병증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제가 사람이다. 즉 사람의 氣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는가가 주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외부 기후를 주제로 한 主氣와 그 배속 순서가 다른 것이다.

『素問·脈解篇』에 나오는 1월-寒, 3월-風, 5월-燥, 7월-熱(君火), 9월-火(相火), 11월-濕의 순서는 關闔樞와 관련이 있다. 11월 1월인 太陰 太陽은 關이고, 3월 5월인 風 燥는 闔이며, 7월 9월인 少陰 少陽은 樞이다.

關闔樞는 인체를 문에 비유한 것이다. 문은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부분은 빗장(關)과 문짝(闔)과 지도리(樞)이다. 빗장은 閉禁, 문짝은 開閉, 지도리는 轉動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3가지 역할이 잘 이루어졌을 때 문이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인체도 三陰三陽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생명현상이 잘 발휘되는 것이다.<sup>8)</sup>

보통 집에는 안쪽 문과 바깥문의 두 개 있는데, 인체에도 三陰이라는 안쪽 문과 三陽이라는 바깥쪽 문이 있다. 바깥쪽 문에 해당하는 三陽에서 太陽은 몸속의 진액이 땀구멍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며, 陽明은 眞氣, 즉 經絡의 氣가 힘들이지 않고 잘 돌아가도록 하며, 少陽은 힘줄이 뼈마디 사이에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해준다. 안쪽 문에 해당하는 三陰에서는 太陰이 물과 음식물의 精微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주며, 厥陰은 즐겁고 슬픈 등의 감정이 잘 표출되도록 하며, 少陰은 津液

3)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63.

4) 이용범. 十二支化氣와 四時陰陽消長の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2). pp. 28-30.

5)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 638-651.

6)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 648-649.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630.

7) 楊上善 撰注.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92.

8)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0권. 1996. p. 481.

즉 精을 주관하여 생명현상이 발휘되는 데에 운혈유 역할을 한다.<sup>9)</sup>

그러므로 關인 太陽 太陰은 빗장을 치는 역할(閉禁)을 하고, 闔인 厥陰 陽明은 감정표현과 經絡之氣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開閉), 樞인 少陽 少陰은 안과 밖에서 운혈유와 같은 지도리의 역할(轉動)을 하는 것이다.

『素問脈解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월별배속을 六氣를 중심으로 관찰해 보면, 六氣의 성질이 서로 같은 것끼리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1월과 11월의 寒과 濕은 모두 水의 기운이며, 3월과 5월의 風과 燥는 서로 같은 기운이며, 7월과 9월의 熱(君火)과 火(相火)도 서로 같은 火의 기운이다.<sup>10)</sup> 이는 三陰三陽 表裏의 六氣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생각건대, 11월과 1월을 關에 배속한 것은 11월과 1월의 濕과 寒의 水氣가 빗장을 친다는 개념(閉禁)과 같기 때문이며, 3월과 5월을 闔에 배속한 것은 3월과 5월의 風과 燥가 經絡의 기운을 운행시키고 감정을 적절히 표출시킨다는 개념(開閉)과 서로 같기 때문이며, 7월과 9월을 樞에 배속한 것은 7월과 9월의 熱과 火가 운혈유 역할을 하는 개념(轉動)과 서로 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같은 六氣의 성질로 배속되면서 그 순서에 있어서는 三陰三陽의 陰陽屬性에 따라 陰이 먼저 배속되고 陽이 나중에 배속되고 있다. 즉 같은 水의 성질인 濕과 寒에서 11월에 陰인 太陰濕이 배속되고 1월에 陽인 太陽寒이 나중에 배속된다. 風과 燥에서도 陰인 厥陰風이 먼저 배속되고, 陽인 陽明燥가 나중에 배속된다. 熱과 火에서도 陰인 少陰君火가 먼저 배속되고, 陽인 少陽相火가 나중에 배속된다.

『素問經脈篇』의 三陰三陽 배속순서를 表裏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보면 6개월의 사이를 두고 表裏가 배속되어 있다. 1월에 太陽이 배속되고 太陽의 表裏인 少陰이 7월에 배속되어 있으며, 3월에 厥陰이 배

속되고, 厥陰의 表裏인 少陽이 9월에 배속되며, 5월에 陽明이 배속되고, 陽明의 表裏인 太陰이 11월에 배속된다. 이는 表裏의 六氣배합이 太陽寒 - 少陰熱, 厥陰風(疏通) - 少陽火(鬱滯), 陽明燥 - 太陰濕으로 상반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素問經脈篇』의 三陰三陽 배속은 인체의 陰陽消長을 표현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월의 太陽은 陽 중에서 가장 힘이 센 三陽이지만 밖으로 드러난 陽이 아닌 속에 응축되어 있는 陽이다. 그러므로 太陽은 陽세력에 있어서는 기본이 된다.

3월의 厥陰은 1월의 太陽과 5월의 陽明사이에 있다. 太陽이 속에 강력하게 응축된 陽이라면 陽明은 陽이 밖으로 드러난(明) 것이다. 그러므로 厥陰은 太陽이 陽明이 되도록 陰의 세력이 차츰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厥陰에서 厥은 盡의 의미이다. 즉 陰이 점차 약해져 다 없어져 가는 상태인 것이다.

5월의 陽明은 厥陰의 도움으로 속에 응축되어 있던 陽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陽明에서 明은 밖으로 드러났다는 뜻이다. 陽明은 陽세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의미한다. 陽이 외부로 강성하게 드러났지만 그 힘의 크기로 보면 속에 응축되어 있는 太陽이 더 강하다. 그래서 太陽을 三陽이라 하고 陽明을 二陽이라 한다.

7월의 少陰은 陰의 세력이 속에서 응축된 것이다. 이것은 1월의 太陽이 陽의 기본바탕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陰세력에 있어서 기본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太陽과 少陰은 각각 陰陽의 세력의 기본바탕이 된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며, 表裏로서 함께 묶일 수 있는 것이다.

9월의 少陽은 陽이 차츰 줄어드는 상태이다. 少陽의 少는 줄어든다는 뜻이다. 줄어들지만 인체의 생명 활동에서 陽氣가 중요하기 때문에 厥陰처럼 거의 다 消盡되지는 않고 少字를 써서 그 정도가 약함을 표시한 것이다. 少陽은 陽의 세력이 줄어들어 少陰이 太陰으로 자라게 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역할은 마치 厥陰이 외부의 강력한 陰세력에서 형성된 太陽이 陽세력의 전성기인 陽明이 되게 도와주듯이 少陽도 강력한 陽세력에서 형성된 少陰이 太陰이 되게 도와주

9)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0권. 1996. p. 473.

10) 이용범. 關闔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 예.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17(1). 2004. p. 220.

는 역할을 한다. 즉 少陽과 厥陰은 陽에서 陰으로, 혹은 陰에서 陽으로 相互 消長하는 가운데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表裏로 묶일 수 있다.

11월의 太陰은 陰이 강하게 밖으로 나온 상태이다. 가장 강한 陰의 세력이어서 三陰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陰의 전성기이다. 陽明이 陽에서는 전성기였듯이 太陰은 陰의 전성기이다. 이렇게 陽明과 太陰은 전성기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表裏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三陰三陽의 表裏관계는 經絡에서도 잘 드러난다. 陰陽세력의 기본바탕으로 뒷바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太陰과 少陰은 인체 뒤를 흐르고 있다. 陰陽세력의 전성기로서 대표성이 있는 太陰과 陽明은 인체 앞을 흐르고 있다. 그리고 陰陽세력의 교체기에 있으면서 중간 조절 역할을 하는 厥陰과 少陽은 인체의 옆을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經絡의 흐름과 表裏로 서로 묶이는 공통점은 그 내용면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sup>12)</sup>

### 3. 『靈樞經脈篇』의 經脈流注 순서

『靈樞經脈篇』에서 經脈流注순서는 다음과 같다.<sup>13)</sup>

手太陰肺經→手陽明大腸經→足陽明胃經→足太陰脾經→手少陰心經→手太陽小腸經→足太陽膀胱經→足少陰腎經→手厥陰心包經→手少陽三焦經→足少陽膽經→足厥陰肝經

이러한 經脈流注 순서를 表裏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經脈流注의 큰 흐름은 太陰陽明經→少陰太陰經→厥陰少陽經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表裏經絡의 큰 흐름 속에는 각각 從胸走手→從手走頭→從頭走足→從足走胸腹의 순환이 내포되어 있다. 表裏經絡에 각각 존재하는 이 순환은 손을 위로 뻗었을 때 陰經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陽經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흐름으로, 몸통과 四肢 頭面 등 전신이 포괄되어 있다.

12經脈이 表裏經絡의 순서로 太陰陽明經부터 흐르는 것은 후천적으로 水穀의 精微와 呼吸의 大氣가 胸中에서 만나 宗氣가 된 다음, 이로부터 經絡의 脈氣가 생성되어 흐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太陰陽明經을 흐른 뒤 少陰太陽經으로 흐르는 것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脈氣가 陰陽세력의 기본바탕인 少陰太陽으로 들어가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영양함을 의미한다. 少陰太陽經을 흐른 뒤에 厥陰少陽經을 흐르는 것은 앞의 太陰陽明經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뒤의 少陰太陽經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少陰太陽經이 太陰陽明經을 도와 줄 때 厥陰少陽經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뒤의 少陰太陽經은 寒熱의 經絡이고 앞의 太陰陽明經은 燥濕의 經絡으로 寒熱로 燥濕을 조절할 때 바람구멍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화로와 술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는데, 화로는 少陰太陽經으로, 술 안의 밥은 太陰陽明經으로, 불조절을 하는 공기구멍은 厥陰少陽經으로 각각 비유할 수 있다. 밥이 되지도 질지도(燥濕) 않게 잘 되기 위해서는 공기구멍에서 불을 잘 조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厥陰少陽經이 少陰太陽經의 寒熱을 잘 조절할 때에만 太陰陽明經의 燥濕이 알맞게 될 것이다. 후천적으로 인체에 흡수된 水穀精微와 呼吸之氣는 太陰陽明經의 알맞게 조절된 燥濕에 의하여 익혀져서 少陰太陽經의 寒熱의 經絡으로 가게 되어 다시 술을 지피는 뉘 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2經脈의 流注순서는 三陰三陽의 表裏關係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靈樞陰陽繫日月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時間配屬

『靈樞陰陽繫日月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時間配屬은 手經과 足經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足經의 배속을 살펴보면, 1월- 左足少陽, 2월- 左足太陽, 3월- 左足陽明, 4월- 右足陽明, 5월- 右足太陽, 6월- 右足少陽, 7월- 右足少陰, 8월- 右足太陰, 9월- 右足厥陰,

11)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0권. 1996. p. 459.

12)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0권. 1996. p. 459.

13)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 221-253.

10월- 左足厥陰, 11월- 左足太陰, 12월- 左足少陰으로 되어 있다. 手經絡은 10월에 배속되는데, 甲日- 左手少陽, 乙日- 左手太陽, 丙日- 左手陽明, 丁日- 右手陽明, 戊日- 右手太陽, 己日- 右手少陽, 庚日- 左手少陰, 辛日- 左手太陰, 壬日- 左手太陰, 癸日- 左手少陰로 되어 있다.

足經은 12개월에 배속되는데, 手經은 左右厥陰이 빠진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足은 陰으로서 地支에 배속시키고 手는 陽으로서 天干에 배속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sup>14)</sup>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手經은 부득이 10개로 구성되어 左右厥陰이 생략된 것이다. 手經에서 厥陰이 생략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서는 足經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足經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陰經 陽經과 左右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張介賓은 전반년 1월에서 6월은 陽인데, 陽은 왼쪽이 먼저이고, 오른쪽이 나중이며, 후반년 7월에서 12월은 陰인데, 陰은 오른쪽이 먼저이고 왼쪽이 나중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5)</sup>

다음으로 三陰三陽이 배속된 것을 살펴보면 少陽 → 太陽 → 陽明 → 陽明 → 太陽 → 少陽 → 少陰 → 太陰 → 厥陰 → 厥陰 → 太陰 → 少陰의 순인데, 이를 關闔樞로 다시 구성하여 보면 樞 → 關 → 闔 → 闔 → 關 → 樞 → 樞 → 關 → 闔 → 闔 → 關 → 樞의 순으로 구성되어 결국 樞 → 關 → 闔 → 闔 → 關 → 樞의 순환이 陽經과 陰經에서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꼴이다.

그러므로 『靈樞陰陽繫日月篇』의 三陰三陽 순서는 經絡의 關闔樞 운행순서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樞 → 關 → 闔 → 闔 → 關 → 樞의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關闔樞는 氣의 출입 과정을 문에 비유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안쪽 문인 三陰이 있고, 바깥쪽 문인 三陽이 있다. 사람이 문을 통하여 출입할 때에는 잠겨있는 상태에서 빗장을 풀고 문짝을 열고 들어온다.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빗

장을 잠그고 나면 문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轉動의 역할을 하는 樞는 문이 열고 닫힐 때 지도리의 역할을 하지만 평소 문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즉 빗장을 풀거나 문짝을 열거나 닫거나 할 때에는 모두 樞가 관여하고, 평소 정상적으로 문이 닫혀진 상태에 있을 때에도 樞는 항상 문 전체에 運轉유를 공급하여 문을 外部와 内部의 자극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문의 전체적인 기능은 樞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關闔樞의 순환에서도 樞가 제일 먼저 用事하는 것이다. 이러한 樞의 상태가 전제조건이 되어 빗장이 풀어지고 들어올 사람과 나갈 사람의 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樞 다음에 빗장이 풀어지는 關이 用事하고 다음에 출입의 과정인 闔이 用事하게 된다. 闔은 문을 통하여 실제 필요한 氣의 출입과 運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가령 三陽에서는 經絡之氣가 잘 運轉되는 것이며, 三陰에서는 즐겁고 슬픈 등의 감정이 잘 표출되는 것이다.<sup>16)</sup> 문이 닫힐 때에는 이와는 반대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闔이 用事하고 다음에 關이 用事하여 빗장이 닫히면, 다시 문 전체에 運轉유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樞가 用事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陰經 陽經의 樞 → 關 → 闔 → 關 → 樞의 순환 과정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작용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봄 여름에는 바깥문인 陽經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가을 겨울에는 안쪽 문인 陰經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III. 결 론

『黃帝內經』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時間配屬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運氣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에 대한 배속은 主氣

16)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0권. 1996. p. 473.

14)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1. “足之十二經脈, 以應十二月, 月生於水, 故在下者爲陰. 手之十指, 以應十日, 日生於火, 故在上者爲陽.”

15)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 303-304.

와 客氣가 있는데, 主氣는 地氣로서 形과 관련이 있어 五行의 순서로 배속되어 있으며, 客氣는 天氣로서 氣의 크기, 즉 一陰→二陰→三陰→一陽→二陽→三陽의 순으로 배속되어 있다.

2. 『素問脈解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월별배속은 陰關(11월)→陽關(1월)→陰闔(3월)→陽闔(5월)→陰樞(7월)→陽樞(9월)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月別配屬에서 1월의 太陽과 7월의 少陰은 陰陽세력의 기본 바탕으로 陰陽勢力을 뒷바라지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表裏로 묶일 수 있으며, 3월의 厥陰과 9월의 少陽은 陰陽세력의 중간조절역할을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表裏로 묶일 수 있으며, 5월의 陽明과 11월의 太陰은 陰陽세력의 전성기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表裏로 묶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表裏관계의 공통점은 經絡流注에서 太陰陽明經이 앞을 흐르고, 少陰膀胱經이 뒤를 흐르고, 厥陰少陽經이 옆을 흐르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

3. 『靈樞經脈篇』에 나오는 12經脈의 流注순서는 큰 흐름이 太陰陽明經→少陰膀胱經→厥陰少陽經의 表裏經絡순서로 되어 있고, 각 表裏經絡은 從胸走手→從手走頭→從頭走足→從足走胸腹의 순서로 전신을 流注하는 작은 흐름을 갖고 있다. 太陰陽明經을 먼저 순행하는 것은 脈氣가 水穀의 精微와 呼吸의 大氣가 만나 형성된 宗氣에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며, 다음에 少陰太陽經을 流注하는 것은 太陰陽明經을 거친 후천적인 영양물질이 寒熱의 變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며, 다음에 厥陰少陽經을 流注하는 것은 寒熱이 공기구멍의 조절을 통하여 燥濕을 적절히 조절하기 때문이다.

4. 『靈樞陰陽繫日月篇』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月別配屬은 전반년인 1월에서 6월까지의 陽에 속하는데, 陽은 왼쪽이 먼저이고 오른쪽이 나중이며, 후반년인 7월에서 12월까지의 陰에 속하는데, 陰은 오른쪽이 먼저이고 왼쪽이 나중이어서, 1월에서 3월까지의 左陽經이 배속되며, 4월에서 6월까지의 右陽經이 배속

되며, 7월에서 9월까지의 右陰經이, 10월에서 12월까지의 左陰經이 배속된다. 陰經과 陽經은 각각 樞→關→闔→關→樞의 순서로 배속되는데, 이는 문이 열고 닫히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다. 문을 열 때 樞는 평소 문 전체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關은 빗장을 여는 것이고, 闔은 문짝을 통하여 출입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을 닫을 때에도 闔은 문짝을 통하여 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關은 빗장을 거는 것이고, 樞는 문을 평소 外部와 内部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 IV. 참고문헌

### 「논문」

1. 이용범. 關闔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예. 대한한의학회지. 17(1). 2004.
2.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사학회지 10권. 1996.

### 「단행본」

1. 楊上善 撰注.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2000.
2.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4.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5.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